

사회



금당산 불... 헬기 진화

29일 오후 3시5분경 광주시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불은 임야 0.7ha를 태우고 2시간30분 만에 진화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협력사 선정·납품량 확대·검수 편의·알짜사업 배정 ...

조선소 하도급 비리 또 터졌다

경찰, 6억8천 채킨 현대삼호重 前 상무 영장 ... 22명 입건

원정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조선업체 간부들과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협력사로부터 돈을 받은 현대삼호중공업 전 상무 김모(54)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부장 박모(53)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각종 하도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정모(51)씨 등 협력사 관계자 21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박 블록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등의 청

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3억1900만원을 받는 등 21개 협력사 관계자들로부터 180차례에 걸쳐 총 6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정기적으로 협력사 대표들을 목포 일대 식당으로 불러낸 뒤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 내용은 ▲협력업체 선정 ▲물량 공급 확대 ▲검수과정에서의 편리 청탁 ▲고수익사업 배정 ▲공정별 단가 고액 책정 등으로 다양했다.

업계의 원청-하청 관행 상 조선소 임직원들은 '갑'(甲), 협력사는 '을'(乙)로 통한다. 조선소는 공정별로 협력사를 선정할 수 있고, 공정에 참여한 협력사 직원 및 공정을 관리·감독하는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정업체인 조선소가 계약을 대가로 금품이나 각종 편의를 요구할 경우 협력업체는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정씨 등 협력사 관계자들은 원정업체의 간부인 김씨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협력사는 새로운 계약 체결과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경 정씨의 회사가 엔지니어링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것을 돕는 대가로 자

신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정씨의 회사는 뇌물을 건넨 뒤 협력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함께 적발된 박씨도 선박 조립 공정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사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채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로 거대 조선소와 협력사 간 '검은 거래'가 또다시 드러남에 따라 조선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민수현 총무부장은 "비리 사실이 확인된 즉시 김씨 등을 신속하게 인사조치했다"며 "원정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방화살인·강도·오토바이 날치기... 잇따른 강력사건 범인 검거 못해

고개숙인 남부경찰

광주남부경찰이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방화살인과 서점 강도, 오토바이 날치기 등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부경찰은 최근 남구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사건 용의자의 검거를 북부경찰에 내주면서 수사력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든 50대 여성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 11일 새벽에도 남구 진월동 한 골목길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으나 수사는 29일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남구 백운동 한 여관 객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40대 장기 투숙객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남부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놓고도 소해 파악을 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3일 뒤인 지난 12일에는 삼아시간대 백운동 한 서점에 과한이 침입해 6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 5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으나 사건 발생 2주가 넘는 이날 현재까지 용의자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다.

남부경찰은 또 다시 3일 뒤인 지난 15일 백운동 한 편의점에 '젓기 모기채'를 든 어설플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자신들이 아닌 북부경찰이 용의자를 단 하루 만에 검거하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구 주민들은 범죄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박모(여·51·광주 남구 주월동)씨는 "사전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는 어렵겠지만 범인은 검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에는 집앞에 나가는 것조차 겁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경찰은 최근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자 형사와 강력팀 근무를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늘리고 주야간 검문활동을 강화하며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취식빵' 유포 실행

범원, 징역 1년 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빵집 주인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범행 다음날 인터뷰한 것이 별도의 죄가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다루는 데 이는 또 다른 범의 표출된 것이라서 따로 범죄가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평택에서 푸대접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죽은 쥐를 찍은 사진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과리마켓'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엄마는 망보고 딸은 출치고

○대형마트에서 수십 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30대 딸과 60대 어머니가 특수절도 혐의로 나란히 경찰서행.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조모(여·38)씨와 조씨의 어머니(68)는 지난 24일 낮 12시40분경 광주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전복과 라면, 파자 등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틀러 담아 달아났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이 물건을 훔치는 사이 어머니에게는 주변을 살펴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억대 담배 암거래

수출용 빼들러 신안선 선주·선원들에 팔아

목포해경 3명 검거

암거래 된 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은 29일 국내 W사 담배를 불법 거래로 구입한 뒤 일반인에게 판매한 김모(50)씨 등 3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담배 210박스(10만5000갑·1억3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3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면세·수출용으로 제조된 담배를 박스 당 40~45만원에 구입한 뒤 10박스(5000갑)를 무

허가 판매업체자인 또다른 김모(여·50)씨에게 박스 당 6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상인인 김씨는 구입한 담배를 신안군 일대 선주들에게 되팔았으며, 선주들은 선원들에게 1보루(10갑)씩을 나눠준 뒤 보루 당 1만5000~2만원의 월급에서 일할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신안군에서 일부 선주와 염전 사업주 등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를 팔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이들을 붙잡았다"며 "최초로 담배를 불법 유통시킨 총책은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 기자 dss6116@

"응 문신 봤지?" 공짜술 마신 조폭 구속

유흥주점서 167만원 상당

광주서부경찰은 29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조폭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을 내지 않고 잠적한 조폭폭력배 박모(31)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밤 11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

강모(35)씨의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16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강씨가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가슴에 그려진 응 문신을 보여주는데 등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보험 관련 판결 2題

“신호위반 교통사고 보험금 반환”

광주지법 “부당이득”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당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사망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정치선 판사는 29일 A손해보험이 최모(여·69)씨 등 유족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씨 등은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6600여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보험사 측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

어 보험사는 면책된다"며 "최씨 등은 사망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의 남편은 지난 2007년 3월 15일 오후 5시경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 승용차 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사망자의 치료비로 일단 6600여만원을 병원에 지급한 뒤 "사망자가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여서 보험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혼하면 배우자 보험자격 상실”

대법 “설명 없어도 유효”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혼한 아내의 유방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장모(43)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가입한 '무배당 직장인 플러스 보장 부부3배형' 보험의 약관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에 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아니게 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해 "해당 보험이 호적상 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배우자를 별도의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약관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라며 "따라서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할 수 있어 보험자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0년 자신을 종피보험자로,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아내가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24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최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림기술직
강의시간 : 08:00 - 0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결

9급 야간반

강의시간 :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능업직/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능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역, 국어, 행정, 행정, 국어, 한문, 회화, 경찰, 교정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률 소망직 (전문)

시정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 09:00 - 0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